

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 폐쇄 위기

'지역 실정 고려 못해 부당' 대법원 판결에 임실지역 주민·군의회 '반발'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왕래하는 직행버스 노선인가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 결정이 확정될 경우 노선이 폐쇄될 위기에 놓여 관내 각급 기관단체가 나서 노선복원 운동에 나서는 등 적극 대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했던 임실~전주~인천공항 직행버스(이하 직행버스) 운행이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기존업체의 공익적 기여도를 앞세워 노선인가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주민들이 불쾌하고 나섰다.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임실~

전주~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을 늘리기 위한 2015년도 노선인가는 부당하다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의회 관계자는 "해당노선의 시외버스는 임실 등 교통오지인 도내 남부 지역의 국외여행객들과 경인지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타 버스에 비해 요금이 저렴해 선호도가 높았었다"며 "이용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공익적 측면이 매우 커 인천공항 직행버스가 계속 운행될 수 있을때까지 지역 기관·단체와 연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임실군 애항운동본부 박재만 본부장과 임원들은 "임실은 노인들이 많아 버스를 환승하고 경비도 더 들어가는 불편이 있는데도 임실~인천공항 노선이 다시 폐쇄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아직도 회사간 구태의연한 노선 싸움으로 그 동안 농촌을 지키면서 순박하게 고향을 지켜온 임실군민들을 무시한 관정이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노선은 누구를 위한 노선이며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부담하는 주민들을 위한 현명한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주민불안 해소... 남원시, 라돈측정기 대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남원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돈 검출기를 3대 확보하고, 무료로 대여해 매트릭스와 라돈 아파트로부터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라돈측정기를 시민들에게 1박2일 동안 무료로 대여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대여한 라돈측

정기는 대여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반납하면 되고, 라돈측정기 대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남원시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시청 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라돈은 공기보다 8배 무거운 무색무취 무미의 방사성 기체로 우리주변 어디에서나 미량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고농도 라돈가스를 장기간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라돈 저감을 위해서는 라돈가스의 실내유입을 차단하고 유입된 라돈은 적극적인 환기를 통해 외부로 배출시켜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를 참고하거나, 남원시 환경과(620-6235)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올해 사관학교 합격생 2명 최종 배출

순창군 육천인재숙

순창군 육천인재숙이 올해도 사관학교 최종 합격생을 배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9학년도 국군간호사관학교 수시 및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1명은 최종 합격, 1명은 조건부 합격해 인재양성의 요람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바람직한 인성과 국가관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5년 최초 사관반을 운영해왔다. 이와 관련 올해까지 4년 연속 매년 2명의 합격생을 배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인재숙이 지역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관학교 합격생 배출에 2018학년도 수료생 43명중 서울대 3명, 서강대 2명, 한양대 1명, 중앙대 1명 등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16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기염을 토한바 있다.

황숙주 이사장은 "육천인재숙은 순창을 넘어 대한민국의 별이 되자라는



원훈처럼 대한민국을 밝히려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육천인재숙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실, 식당, 강의실, 체력단련실을 갖춘 4층 규모의 기숙동 1개동을 증

축해 남녀 학생간 기숙공간을 분리해 면학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교육 1번지 순창군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홍부제 노래경연 '홍부가왕' 주목

21일 토너먼트 형식 경연

남원시 가을철 대표 축제인 제26회 홍부제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우에 나눴 보는 행운'을 주제로 사랑의 광장과 광장주차장, 요천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홍부제는 4개 종목 21개 분야로 펼쳐질 예정이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홍부가왕'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

홍부가왕은 21일 일요일 오후 2시 사랑의 광장 옆 주차장(홍부장터)에서 열리는 노래경연을, 참가자들은 '홍부전' 또는 '남원'을 떠올릴 수 있는 개성있는 복면이 나 가면 등 탈을 쓰고 출연해야

하며, 경연은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경연 총상금은 100만원으로, 가왕으로 선발된 1인에게는 20만원 상당의 홍부제 상품권이 수여되며 기타 참가자들에게도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면서 그야말로 '홍'나고 '박'터지는 시간이 기대되는 행사로, 홍부가왕에서 상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홍부제에서 운영되는 알뜰장터, 먹거리장터 및 푸드트럭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홍부가왕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홍부가왕(전화 010-4541-5770)에 네임으로 전화접수하거나 당일 현장접수하면 참가가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국가지점번호판 확대 설치

남원시는 시민들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지리산둘레길 1코스와 애기봉 및 달봉의 총 2곳에 국가지점번호 안내표지를 울해안에 확대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물에 없는 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국가지점번호가 소방·경찰·산림청 등 기관별로 각각 다르게 사용하던 위치표시 체계를 하나로 통합, 산·하천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된 위치 안내 표시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긴급 상황 시 신고와 출동이 쉽고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지리산둘레길 전 코스로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이 없는 곳에 국가지점번호판을 통해 시민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가을 성수기 맞아 강천산 무료 셔틀버스 운영

순창군이 가을 성수기를 맞이해 강천산 군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와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한다.

강천산은 자가용 및 버스주차장에 승용차 368대, 대형버스 126대를 주차할 수 있다. 그동안 매년 가을 성수기만 돌아오면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일시에 몰려 임시주차장마저도 부족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운영일자는 오는 27일과 28일, 11월 3일과 4일, 10일과 11일 총 6일간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군 관계자는 "강천산은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주요관광지로 가을 단풍철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면서 "특히 가을 단풍철이면 자가용 주차장이 협소하니 무료 셔틀버스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오늘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17일 고창군 고창읍 월곡산림욕장 일원에서 서부청과 관내 5개 국유림 관리소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장비 운용능력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화태세를 갖추고 진화역량을 배양해 산불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회방식은 1팀 10명으로 실제 산불현장과 비슷한 연장거리 600m, 고도차 91m 지점의 산림에 산불발생을 가정하고 기계화시스템을 활용해 간이수조(50L) 2개에 진화수수를 공급, 담수 완료 시간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서부청 관계자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